LPGA 한국 군단, 호주서 연승 도전 나선다

13일 호주여자오픈… 박희영 2주 연속 우승 노려
유소연·박인비·이정은·최혜진·조아연 등 총출동

2020시즌 세 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자가 나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한국 군단이 연승에 도전한다.

LPGA 투어는 9일까지 빅토리아주 서틴스 비치 골프 링크스의 비치 코스에서 열린 ISPS 한다 빅오픈에 이어 호주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주는 13~16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파72·6648야드)에서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 달러)이 열린다.

애초 호주 일정 이후 3주간 이어지려던 '아시안 스윙' 대회가 모두 취소되면서 이번 대회를 마치고 LPGA 투어는 3월 19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볼빅 파운더스컵까지 예상치 못한 휴가를 앞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20일부터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혼다 LPGA 타일랜드, 27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려던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 3월 첫째 주 중국 블루베이 LPGA가 줄줄이 취소됐다.

출전할 수 있는 대회 수가 급격히 줄어든 만큼 하나의 대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졌다.

휴식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도 다수의 한국 선수가 출전해 우승 경쟁에 뛰어든다.

빅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정상에 올라 6년 넘게 이어지던 우승 가뭄을 해소한 박희영(33)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상금 순위 110위에 그쳐 퀄리파잉 토너먼트 Q시리즈를 거쳐 올해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획득했을 정도로 부진했던 박희영은 빅오픈에서 한국인 최고령 우승 신기록(만 32세 8개월 16일)을 작성하며 부활을 알렸다.

시즌을 시작한 빅오픈에서 박희영, 최혜진(21)과 연장에 올랐으나 2차전에서 먼저 탈락한 유소연(30)도 다시 우승 도전장을 내민다.

출전 대회 수가 줄어든 건 유소연을 비롯해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선수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 타이틀 방어에 나서려면 분전이 필요한 박인비(32), 현재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네 번째로 높아 뒷순위 선수들의 추격을 받는 이정은(24·9위) 등의 마음도 급할 수밖에 없다. 박인비와 이정은은 빅오픈에서 나란히 컷 탈락한 뒤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빅오픈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표주자 최혜진과 조아연(20)은 다시 한번 LPGA '직행 티켓'을 정조준한다.

최혜진은 빅오픈에서 박희영, 유소연과 공동 선두로 연장전에 들어간 뒤 박희영과 4차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준우승, 국내 무대 최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조아연은 4라운드 난조로 공동 16위로 미끄러졌으나 3라운드 단독 선두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스위핑하는 '팀킴' 11일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팀킴' 경북체육회 김경애(오른쪽)와 김선영이 스위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출신 '임창우' ACL서 극적 동점골

아랍에미리트 알 와흐다
첫 경기에서 1-1 무승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뛰는 수비수 임창우(28·알 와흐다)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첫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임창우는 11일 오전(한국시간) UAE 아부다비의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1차전 알 아흘리 사우디(사우디아라비아)와 홈 경기에서 후반 45분 동점골을 넣어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코너킥 기회에서 상대 수비가 걷어낸 공이 페널티킥 지점에 있던 세바스티안 탈리아부에게 향했고, 탈리아부가 머리로 떨어뜨려 주자 임창우가 골 지역 정면에서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 지었다.

임창우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풀타임을 뛰었다.

제주출신으로 K리그 울산 현대 산하 유소년팀인 현대중·고를 졸업하고 2011년 울산에 입단한 임창우는 2014년 대전 시티즌으로 1년간 임대됐다가 울산에 복귀해 2016년 알 와흐다로 이적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과 결승전(1-0 승)에서 연장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연합뉴스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려 AFC(아시아축구연맹)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한 임창우. 연합뉴스

김광현, 핵심 불펜 갠트와 롱토스 훈련

12일 스프링캠프서 불펜 피칭
"선발로 뛸 수 있도록 노력"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왼손 투수 김광현(32·사진)이 핵심 불펜 존 갠트와 롱토스 훈련을 하며 순조롭게 현지 적응에 나섰다.

김광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딘 스타디움 훈련장에서 붉은색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고 스프링캠프 본 훈련 대비에 나섰다.

현지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김광현은 스트레칭과 러닝 훈련, 필드 수비 훈련을 소화했고 캐치볼과 롱토스 훈련으로 어깨를 달궜다"고 전했다.

이날 김광현과 짝을 이뤄 롱토스 훈련을 한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의 핵심 불펜 갠트였다.

그는 지난 시즌 11승 19홀드 3세이브 1패 평균자책점 3.66을 기록한 핵심 선수다.

2018시즌엔 세인트루이스 선발을 맡아 7승 6패 평균자책점 3.47로 활약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2일 스프링캠프 첫 공식 훈련을 시작한다.

김광현은 12일 불펜 피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발 경쟁에 나선다.

MLB닷컴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김광현은 새 팀에서 첫 훈련을 마친 뒤 "비로비치(SK 와이번스 전지훈련캠프)에서 캐치볼을 하고 피칭도 했기에 오늘은 첫날이라 가볍게 훈련했다"며 "선발 투수 스케줄을 받았는데 시범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정규 시즌에서도 선발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일일강사 나선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드림KFA'
중고생들에 맞춤형 조언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한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드림 KFA'에 깜짝 등장해 중고생들에게 '맞춤형 조언'을 해줬다.

손흥민은 11일 오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드림 KFA' 행사에 참여했다.

'드림 KFA'는 축구협회가 2014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바로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이었다.

지난 6일 사우샘프턴과 FA컵 32강 재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오는 16일 애스턴 빌라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까지 경기 일정이 없어 최근 입국했다. 축구협회로부터 '드림 KFA'의 취지를 들은 손흥민은 흔쾌히 참가를 결정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손흥민은 스포츠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유쾌하고 진지한 조언을 건넸다.

손흥민은 참가자들의 이름과 희망하는 직업을 미리 파악한 뒤 참가자들의 이름을 불어주며 '맞춤형 조언'을 했다.

한편, 손흥민의 이번 행사 참가는 병역특례자 봉사 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11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드림 KFA'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